

요즘 누구나 한 개 정도는 갖고 다니는 MP3플레이어. 내 손안에 오디오로 불리는 MP3 플레이어의 거듭된 진화는 이제 LCD화면을 통해 가사까지 확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요부터 어학까지 MP3플레이어에 자막을 표시하는 기술을 만드는 테일러테크놀러지. MP3플레이어의 새로운 선택기준을 세우고 있는 테일러테크놀러지를 방문했다.



국내 50여개 업체에 자막서비스 제공

테일러테크놀러지의 김명구 대표가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MP3플레이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서 상품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 남다른 아이디어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김 대표. “MP3플레이어에 가사지원서비스를 하면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 7월에 창업하게 되었다. 창업 후 회사 매출도 꾸준히 늘면서 2007년 현재까지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 2008년에는 50억 원, 2009년도 1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 50여개 업체에 LDB(Lyrics Data Base)라는 이름의 자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MP3플레이어를 비롯하여 PMP,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등에 자동가사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와같은 디지털기기의 LCD 화면에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특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도 등록됐다. 특허가 중국에서 등록됨으로써 자막지원 기능이 들어가는 MP3P를 제조하는 중국업체들은 앞으로 이 특허를 가진 테일러테크놀러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MP3자막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특허로, MP3 파일에 자막을 지원하는 플레이어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한국, 영국, 대만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 일본에도 출원돼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연이어 MP3자막지원 기술특허가 등록되면서 관련업체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특허경쟁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 MP3P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특허는 테일러테크놀러지가 라이선스를 받아 각 업체들에게 통상실시권(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레인콤, 코원시스템에 통상실시권을 발급한 상태다.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분야로 사업 넓혀

테일러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각종 디지털기기의 LCD화면에 자동으로 가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가사지원 기술은 현재 삼성전자, 레인콤, 코원시스템 등 국내 MP3플레이어 제조사의 95%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디지털기기 제품에 활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향후 테일러의 기술을 삼성전자, LG전자 등 메이저 휴대전화 개발기업은 물론 애플사의 아이팟 시리즈에도 탑재하기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기와 관련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테일러테크놀러지. 현재 디지털기기의 제품 디자인 및 GUI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고 디지털기와 융합하는 악세사리 제품(USB기능, 이어폰기능, 블루투스기능)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김명구 대표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매출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뤘으나 향후에는 핸드폰과 디지털복합기기에서 필요로하는 소규모 악세사리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하여 외형을 늘리겠다”고 견고한 포부를 밝혔다.



테일러테크놀러지는 MP3플레이어에서 가사보기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특허로 해외에서도 로열티를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